



트렌드리포트 02

브렉시트 이후 유럽 미디어 환경 변화 전망

1. 들어가며

2.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 미디어 시장

2.1. 브렉시트: 영국의 탈 유럽

2.2. 미디어 기업들의 탈 영국

3. 브렉시트 점화, 유럽 미디어 시장의 변화

3.1. 규제

3.2. 인력

3.3. 제작과 배급

4. 시사점

브렉시트 이후 유럽 미디어 환경 변화 전망

요약문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으나, 지난 3년간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의 완전한 탈퇴, 즉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에서 서비스와 노동 분야만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로의 입장 선회, 이를 두고 벌어진 국내외의 정치적 분열 및 EU와의 협상 난항, 영국 의회의 부결이 이어지다가 2020년 1월 31일 마침내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었다. 영국과 EU 간의 결별로 인해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그리고 그 변화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아직 영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 제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향후 미디어 시장 변화를 촉발할 요소들을 짚어 봄으로써, 브렉시트가 영국 및 유럽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으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탈퇴 이후 상황에 대한 영국과 EU의 합의가 연거푸 불발되면서 영국 내에서도 영국의 유럽 잔류와 탈퇴를 두고 다시금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나 2020년 1월 31일, 3년 이상의 난투극과 정치적 분쟁을 뒤로 하고 마침내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다.



2020년 말까지는 영국과 EU의 협상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가 발효된 상태이고,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영국과 EU의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영국의 문화 산업에 도전과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달 사이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영국 내 많은 기업이 유럽 잔류를 선호하며,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 증가로 부정적 결과 초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미디어의 주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 미디어 시장

2.1. 브렉시트, 영국의 탈유럽

과거 영국제국의 역사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 정서가 기저에 깔려 있다. 1973년 1월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에 가입 후 불과 2년 만에 인재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EC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당시는 67%의 지지로 잔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로존 경제 상황,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 EU의 정치적 개입 등은 EU 탈퇴에 대한 거센 요구로 이어졌다.

EU 탈퇴에 찬성하는 측은 연간 65억 5,000만 파운드(약 10.1조원)에 달하는 EU 분담금에 대한 부담과 33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수용으로 인해 불거질 이민자 복지지출, 고용시장 악화 등을 이유를 들었다. 반대 측은 EU 탈퇴로 인해 투자 감소와 수출 부진뿐 아니라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경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찬반 대결로 갈등이 심각해지자, 결국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실시, 52%의 찬성으로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탈퇴 결정 후에도 여당인 보수당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의 완전한 탈퇴를 주장하는, 즉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고집하다 이것이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론이 모아지면서 서비스나 노동 분야만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를 두고 국내·외의 정치적 분열, EU와의 협상 난항, 영국 의회의 부결 등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기나긴 정치적 공방 끝에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이 총리에 당선되면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는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지속되어온 불확실성을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EU의 단일 시장에 속해있던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탈영국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기 시작한 것이다.

2.2. 미디어 기업들의 탈영국

유로존의 저성장 지속에도 영국 경제는 차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크라운(The Crown)>, <신비한 동물 사전(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 <스트릭틀리 컴 댄싱(Strictly Come Dancing)> 등의 성공으로 최근 10여 년에 걸쳐 호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파운드화의 평가 절하는 수출을 촉진했고, 공동제작을 위한 자금 조성 기회와 EU의 제작 후원 자금이 충분했으며, 관대한 세금 감면 정책까지 있어 영국은 손쉽게 TV와 영화 제작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유럽의 미디어 수도처럼 여겨져 왔다. EU 전체에 걸쳐 허가된 2,200개의 방송 면허 중 절반 이상이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이 허가한 것이다.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넷플릭스(Netflix)를 포함한 미국의 미디어 회사들 역시 유럽진출을 위한 본거지로 영국을 선택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미디어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미 2016년 6월 브렉시트 타결 발표 직후, 시장에 급격한 변동과 파운드화 가치 하락이 발생했고, 이는 영국 방송사의 광고 수입 급감, 콘텐츠 수입 비용 증대, 환율 손실로 인한 영국에 기반을 둔 해외 방송사들의 비용 상승을 가져왔다. 2020년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탈영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본사를 이주한 기업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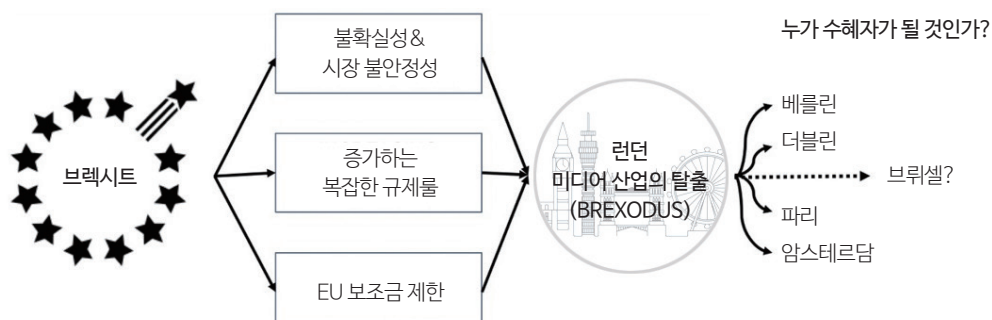
이들은 대부분 브렉시트는 현재 미디어 산업에 호의적인 규제 체제를 와해하고, 고급 인력과 제작 자본에 대한 접근성 상실을 초래하여, 결국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5월, 디스커버리(Discovery)가 런던에 있던 유럽 본사를 폐쇄하고 이전을 발표하는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이 250여 개의 기업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라는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이 중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TVT 미디어(TVT Media), 블룸버그(Bloomberg)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2020년 10월에 NENT 그룹(Nordic Entertainment Group)은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TV 채널에 대한 방송 라이선스 등록을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스웨덴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 매체 전문지인 디지털 TV(Digital TV)는 NENT 그룹 회장 겸 CEO인 앤더스 젠슨(Anders Jensen)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아플레이(Viaplay)와 비아프리(Viafree), 그리고 유·무료 채널 서비스가 EU 국가들에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규제 기반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송 전문 잡지 버라이어티(Variety) 역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브렉시트 이후 발생할 규제 변화가 지금보다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국가 간 원활한 서비스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업들은 시장의 안정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탈영국을 선택한 것이라 덧붙였다.

그림 1 브렉시트(Brexit)로 탈 영국 선언하는 미디어 기업들, 그 이유



3. 브렉시트 점화, 유럽 미디어 시장 변화를 좌우하는 요인들

영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창조 산업에 대한 가치는 2016년 기준 920억 파운드로 영국 경제의 5%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제조업 분야인 철강이나 항공보다 큰 규모다. 미디어 산업에 미칠 브렉시트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 규제

영국에 본사를 둔 주요 방송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EU의 시청자들에게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EU에는 '시청각 미디어 지침의 원산지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 of the European 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이 있어, 방송사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국가에서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방송 면허를 받게 되면 EU 전역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BBC는 영국 Ofcom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았으므로, 유럽 연합에 방송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따로 면허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방송사들 역시 Ofcom에서 면허를 취득해 유럽 전역에 방송한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 같은 원칙 적용을 할 수가 없어 해외 방송사들이 다른 EU 국가로 면허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Ofcom 역시 현재 EU 전역에 방송되는 2,200개 채널 중 절반 이상의 허가를 담당함으로써 매년 50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브렉시트로 인해 허가 수수료는 물론 유럽 미디어 허브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2021년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발원한 작품은 전환기 종료 후에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AVMSD)에 따라 여전히 유럽 작품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U 역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이해당사자들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는 유럽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의 ‘트랜스프런티어 텔레비전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ECTT)’에 관한 유럽협약이 2021년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ECTT에 관한 유럽협약은 ECTT에 가입한 국가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수신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U 27개국 중 2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은 원산지 원칙¹을 정하고 있어 영국의 EU탈퇴 전에는 Ofcom에서 받은 면허로 영국은 EU에서, 영국 외의 EU 방송사들은 영국에서(Ofcom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이 EU탈퇴를 하더라도 ECTT에 가입한 20개국 안에서는 영국 콘텐츠는 유럽 작품으로 인정받아 어떠한 조건 변경 없이 방영이 가능하다. 다만, EU 소속이지만 ECTT에 가입하지 않은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7개 국가와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영국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여전히 ECTT 가입국이므로 영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EU 소속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7개국과는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3.2. 인력

영국 정부의 테크 네이션(Tech N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창조산업 인력 중 약 40%는 외국인이다. 창조산업 중에서도 미디어 분야에 한정하면 75%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영국의 VFX, 포스트 프로덕션 및 애니메이션 부문은 노동 집약적이고 EU 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교육을 통해 영국 노동력 향상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 인재의 손실과 함께 기술 격차가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1) 국가에 기반을 둔 방송채널과 영상 주문형 서비스의 제공자는 ‘원산지’로부터 하나의 규칙과 규제만을 받는다.

따라서 영국이 유럽 경제권(European Economic Area; EEA) 이주를 위한 이동 자문위원회(the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MAC)의 권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EU와 창조 산업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구직활동에 대한 모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누려왔던 미디어 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3.3. 제작과 배급

브렉시트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배급 문제는 EU의 자금 지원 중단 여부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국 콘텐츠가 EU의 쿼터 시스템 안에 포함되느냐이다. 후자의 경우, 영국의 ECTT 회원국 유지로 인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영국은 공동제작 붐이 일면서 TV와 영화 제작의 중심지로 인기를 끌었다. 덕분에 제작비 유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배출했다. 영국이 공동제작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EU의 지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 크리에이티브 유럽 데스크(Creative Europe Desk UK)’에 따르면,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유럽이 후원한 모든 프로젝트의 44%에 관여되어 있고, 2014~2016년 3년간 예산의 11%(2014~2020년 예산 14억 6,000만 유로, 한화 약 800억 원)를 수령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영국의 공동제작에 후원된 유럽 지역 개발 기금(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펀드(the Creative Media Fund)는 약 1억 5천만 유로(약 2,000억 원)였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으로 영국 미디어 산업은 활기를 띠었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다시 제작비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EU의 제작 후원은 상업적 콘텐츠 제작에만 편중되지 않고 비상업적 콘텐츠 제작에도 투입되어 균형 있는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더 이상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지역 개발 기금과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펀드는 EU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제작사와 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빗발치는 제작사들의 문의에 영국 정부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2020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후에도 EU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영국으로의 제작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게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증강 현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게임, 영화, TV 콘텐츠 제작 육성을 위해 1억 5,000만 파운드의 창조산업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4. 시사점

영국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강점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금융, 법률 및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EU의 다른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영국의 미디어 리더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기는 쉽지 않다. 다만, 브렉시트로 인해 시장의 일부 요소가 손실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제작비 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큰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 인종, 전통, 희귀 문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안 마련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국이 지녀온 글로벌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의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능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접근성 확보, 제작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영국과 EU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계 설정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브렉시트가 완료되고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은 갈 길이 멀다.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2020년 이내에 타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하면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여러 국가가 영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다만, 지난 십여 년간 지속하여온 영국의 글로벌 미디어 파워를 고려해 볼 때, 영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미디어 강국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REFERENCE

1. Brexit: Netherlands talking to 250 firms about leaving UK, The Guardian, 2019.2.9.
2. How Brexit Will Shape the U.K. Film and TV Industry From 2020, Variety, 2020.1.31.
3. NENT quits UK for Sweden, posts strong growth for Viaplay, Digital TV, 2020.10.23.
4. Report 2018, Tech Nation, 2018.
5. Seven Things Business in the EU27 Need to Know In order to prepare for Brexit, European Commission, 2018.7.
6. The Brexit conundrum: It's impact on UK's broadcasting and production industry, Royal Television Society, 2019.2.
7. The Brexit conundrum: It's impact on UK's broadcasting and production industry, Royal Television Society, 2019.2.
8. The Media Industry: Deliberating Brexit, REDBEE, 2017.12.20.
9. UK government launches £150m creative industries fund, The Drum, 2018.3.28.
10. Will UK films and TV programmes still count as "European works"?, BFI. <https://www.bfi.org.uk/strategy-policy/policy-statements/brexit-end-transition-period-answering-questions-from-screen-sectors>